

전북농협,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이창완 경제지주 부분부장 · 이기복 중앙회 부분부장

최한호 전북검사국장 등 총 57명... 내년 1월 1일 발령

전북농협이 23일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전북본부 내년 상반기 M·3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단행한 인사는 부분부장, 국장, 시군지부장급 등을 포함한 총 57명으로, 발령은 내년 1월 1일이다.

먼저, 경제지주 부분부장에 이창완 씨, 중앙회 부분부장에 이기복 씨가 임명됐으며, 신임 전북검사국장에 최한호 씨가 임명됐다.

시군지부장급으로 이문규 씨가 고창군지부장, 김삼형 씨가 부안지부장, 이상우 씨가 익산시지부장, 이진산 씨가 임실군지부장으로 부임하며, 정영선 씨는 정읍시지부장으로, 이재연 씨가 정읍지부장, 김경호 씨가 전북영업부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부분부장, 국장과 시군지부장을 포함한 내년 상반기 M·3급 전보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부분부장 <경제지주> ▲이창완 <중앙회> ▲이기복
 ◇국장 <전북검사국> ▲최한호
 ◇시군지부장 ▲고창군 이문규 ▲부안군 김삼형 ▲익산시 이상우 ▲임실군 이진산 ▲정읍시 정영선 ▲정읍시 이재연 ▲전북영업부장 김경호
 ◇지역본부 단장 <중앙회> ▲경영기 ▲하양진 ▲농촌지원단 정현주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 김중인 <경제지주> ▲양곡자재단 이철오 <영업본부> ▲현장지원단 김용현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전주 원주시군 이남록 ▲진안군 장승운 ▲남원시 유은실 ▲순창군 송경규 ▲익산시 신현섭 ▲군산시 강용근 <부지부장> ▲고창군 김종주 ▲군산시 최승웅 ▲김제시 이순덕 ▲순창군 백광숙 ▲익산시 박성현 ▲임실군 유태규 ▲진안군 김형주 ▲정읍시 채지석
 ◇지점장 ▲삼천동 최은주 ▲서신동 최형순 ▲호성파크 임인 ▲군산중앙로 오창모 ▲나문센터 안용영 ▲익산 중앙진기영 ▲금암동 최금숙 ▲효자동 원천연 ▲전주에코시티 황승연 ▲영등동 장정미
 ◇출장소장 ▲전북도청 오국영 ▲고창군청 김경화 ▲남원시청 한정호 ▲익산시청 이승배 ▲임실군청 국영욱 ▲장수군청 하정남 ▲정읍시청 유승곤 ▲진안군청 김남희
 ◇팀장 ▲전북도청 강자인 ▲전주완주시군 노윤정 ▲아중 홍지철 ▲호성파크 오태임 ▲군산중앙로 김성미 ▲나문센터 김병욱 ▲익산시 이민경 ▲익산중앙 이현선 ▲임실군 노영진 ▲정읍시 고보경. /김윤상 기자



이창완 경제지주 부분부장, 이창완 중앙회 부분부장, 최한호 전북검사국장, 이문규 고창군지부장, 김삼형 부안군지부장, 이상우 익산시지부장, 이진산 임실군지부장, 정영선 정읍시지부장, 이재연 정읍시지부장, 김경호 전북영업부장



김정우 조달청장이 23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혁신과 MZ세대와의 소통'을 주제로 비대면 특강을 하고 있다.

'공공조달 혁신과 MZ세대와의 소통'

김정우 조달청장, 전북대 특강 나서

김정우 조달청장은 23일 전북대 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혁신과 MZ세대와의 소통'을 주제로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특강에서 "불필요한 권위와 관습은 버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지난해 11월 조달청장 취임 후부터 혁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의 주제인 혁신조달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과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혁신조달은 조달청이 먼저 국민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김 청장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은 계약 위주의 과거 조달행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사례"라며 현 정부의 과거 조달행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혁신조달이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

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권위는 낮추며 직원에게 먼저 다가서는 김 청장의 행정은 소통과 토론의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다.

김 청장은 직원들의 직책 대신 이름과 '님'을 붙여 부르고 있고 김 청장 본인도 '청장님' 대신 '정우님'으로 불리며 조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조달청 인사운영에 노조 참여를 경제화하고, MZ세대 젊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와 조직문화 혁신활동도 직접 챙기는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회의 때는 상석 구분이 없는 원형 테이블을 이용하고, 직급·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참석자들이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이용하는 등 토론 위주의 조직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성공적인 세대 간 소통과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권위를 버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7일부터 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이하 '농진청')은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께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 주요 준수사항으로 먼저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께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께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한다.

이와,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한다. /김윤상 기자



과수화상병 현장 연구상황 점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23일 충북 충주시 신척면 과수화상병 농가 실증포장에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현장 연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국토부-LX, 아이디어 공모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X한국 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김정렬)가 2021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최고의 창업 아이디어 10개를 발굴해 육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관하는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전주시 LX공사 본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 7년 미만의 소규모 창업기업은 건설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예비창업자는 새싹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10월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7개 팀이 참가했으며 11월 23일 서류심사와 12월 8일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예비창업자 부문에서는 ICT 기반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인증 및 상쇄권 거래 플랫폼을 제안한 김태경 씨가,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지도 기반 건물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 플랫폼·EnergyMap'을 제안한 (주)나인와트(대표 김영록)가 각각 대상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예비창업자 김태경 씨는 ICT 기반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인증 및 상쇄권 거래 플랫폼을 제안함으로써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산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23일 전주시 LX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창업기업 (주)나인와트(대표 김영록)는 지도 기반 건물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 플랫폼으로 도시단위 에너지 및 탄소관리 솔루션 AI기술을 활용한 건물에너지 진단 및 절감, 지도 기반 광역 에너지 성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국토 등 지역단위의 탄소중립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주)테크트리노베이션(대표 최승업)의 '실제지도정보 기반 디지털정보 제공 장치 및 그 제공 방법' 등 최우수상 4팀, (주)일레븐스디(대표 이종걸)의 '스마트시티 활용 GIS 기반 입지환경 및 지하공간 디지털트윈 구현 고도화' 등 우수상 4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는 입상 순위에 따른 창업자금, LX공간정보센터 창업공간, IT인프라, 창업 컨설팅 등 최대 3년간 LX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의 특전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임현량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공간정보는 향후 국가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공간정보 활용 창업 공모전이 청년들과 소규모 기업들의 아이디어 창출의 장과 우수 새싹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신규 창업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LX는 창업기업의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해 LX 김기승 부사장, 국토교통부 임현량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박두열 데이터본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신욱 기획조정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들이 ESG 경영 선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 성장 ESG경영 선포

새만금개발공사, 에너지 효율화 등 실천 의지 표명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23일 새만금 홀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감염 예방을 위해 공사 임원 및 부서장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해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경영시

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적극 실천의 의지를 표명했다.

강병재 사장은 이날 선포사에서 "오늘 ESG 경영 선포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시작"이라며 "공사는 ESG가 추가적인 업무의 하나가 아닌 공사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북부시장, 원산지 자율관리 평가 '장려상' 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 이하 '농원원 익산사무소')는 23일 2021년 원산지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된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이태준)에 농관원장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MOU를 체결한 전국의 전통시장 104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와

지도·홍보실적을 평가해 익산북부시장이 전국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농원원 익산사무소는 지난해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와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추진해왔으며 북부시장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1년만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냈다.

/익산=이득훈 기자